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瑞龍呈祥

甲辰元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권영걸 배.



瑞龍呈祥 · 서룡정상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 나라가 태평하고 온 국민이 화평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사



평한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가정은 두루 평안하시고, 작업실에는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위가 한창이지만 대한을 지나 입춘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온몸의 감각을 통해 세미하게 느껴집니다. 어깨를 누르는 두툼하고 무거운 겨울옷들이 슬슬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계절이 우리의 기력을 떨어뜨리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어도, 우리 동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힘차게 창작에 열중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해는 토끼처럼 땅 위를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갑진년 올해는 용처럼 하늘로 비상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괴질이 지나고 평온한 세상이 오는가 했더니, 국민대표를 뽑는다고 세상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 나라도 태평하고 온 국민이 화

2024.1.1. 새해, 새 아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장 권영걸 배.

신년인사말



를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가지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문 여러분의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은 풍년과 풍어를 주재하는 신으로, 희망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용이 있는 문에 오르다'라는 뜻의 '등용문(登龍門)'은 창작자가 등단하거나 상을 받았을 때도 많이 쓰는 단어이며,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도 높은 업적과 지위에 올라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의 기운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문들 모두 하시는 일 더욱 크게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작 정신과 열정으로 희망을 그려 나간다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예술 창작의 힘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서로가 서로의 성취를 응원하며 동문으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용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행복, 창의적 열정이 새해를 가득 채우길 바라며, 이를 위해 미술대학과 동문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술대학은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 교육의 내용을 고민하고, 창작의 결과를 교내외로 널리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인의 창조적 불꽃이 모여 더 큰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갑진년 한 해 동안 동문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정의철

신년사 **김종섭**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사랑하는 44만 서울대 동문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밝은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총동창회는 많은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보람 있는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로서 한층 더 나아가려 합니다. 동문들 간의 친목 도모와 평생 학습의 기회를 공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모교 발전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동창회로 자리 잡겠습니다. '보람 있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총동창회는 새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하 사회공헌위원회의 사업을 심화하는 동시에, 협력관계인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라오스 공헌활동에 동문들이 참여한 데 이어, 새해 벽두부터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군산 다문화가정 SNU공헌단 사업에 동문 단원들이 참가합니다. 총동창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학사업이 주 목적인 기존 재단법인 관악회와 별도로 사회공헌사업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공익법인 설립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회는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적십자를 통해 구호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월 7일엔 총동창회 미주 남가주지부와 함께 '국제난민구호' 성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서울대'를 지향하는 모교와 발맞춰 총동창회도 국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손길이나마 내밀 것입니다. 새해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음악회와 골프대회는 '나눔'을 목표로 개최할

것이며, 수익금은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회 장학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 학기 20억원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장학사업의 방향도 서서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재학시절 리더십을 함양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리더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새해엔 다문화가정 출신 재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학창 시절부터 봉사와 사회공헌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유익한 동창회'로서 총동창회는 현재 조찬포럼, 수요특강, 관악경제인회 포럼 외에도 문화 강좌와 젊은 동문들을 위한 '자녀 교육과 진로 선택' 강좌나 특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동문 전용 쇼핑몰인 'Mall SNUA'은 동문들을 위해 특화된 상품들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의 국토문화기행, 등산대회, 바둑대회 등 취미와 함께 '즐거운 동창회'를 만드는 데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학생과 동문 간 유대도 강화됩니다. 예비 동문인 재학생들이 총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연대감을 강화하고, 홈커밍데이 등 동창회 행사는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으로 조성됩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동양서 용은 정의롭고 영험한 존재로서 수행을 통해 고결한 정신을 갈고 닦거나 선행을 쌓아 승천의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으로서 서울대인의 위상은 '승천하는 용'처럼 타인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동문들의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모교 후학들의 인성 도야와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대 동문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하시면서 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서울대인이 더욱더 우리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서로운 청룡을 닮아 기운차고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사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청룡처럼, 우리 모두 힘찬 기백으로 역동적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며 서울대의 대전환을 이루는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오늘, 우리 대학이 과감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리며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만 서울대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대학' 설립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유지해 온 대학 내 칸막이들을 걷어 내고,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공통핵심-융복합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출범하는 첨단융합학부도 이러한 지향 속에서 운영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대학과 첨단융합학부가 기초교양 교육뿐 아니라 전공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우리 사회의 호응을 얻고, 그 성과가 더 큰 신뢰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에서 우리 대학은 인류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관-학 융복합 연구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도전을 통해 연구 역량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서울대의 행정조직과 운영방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 등 대학의 핵심 활동이 활력을 얻고 도약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보다 기민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와 교육을 늘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규제 위주 행정을 벗

어나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신뢰 기반 거버넌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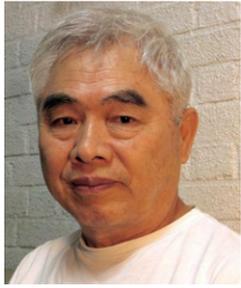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2024년은 한 해 뒤에 다가올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종합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서울대 내 다양한 학문 영역들이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서울대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과학 이론 중 하나로 창발성(emergent property) 이론이 있습니다. 하부 단위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만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이 하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상위의 체계 수준에서 발현된다는 이론입니다. 학제를 초월한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종합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혁신과 도약의 창발성이 발현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의 생태계입니다. 다학제적 교육과 공통 핵심역량 교육의 확대, 학부대학의 설립, 글로벌 융복합 연구 플랫폼 구축, 유연하고 기민한 행정지원 체제로의 전환은 서울대학교가 창발성을 구현하고 고등교육과 연구 생태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과업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이 역사적 여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새해의 희망찬 계획과 더불어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 것으로 새해 첫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저와 우리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현재 우리의 위치에 대해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명예로운 위상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며 명실상부하게 일구어낸 것인지, 혹여나 그저 관행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아닌지 성찰해 봅시다. 우리의 반성은 올바른 시대적, 사회적 소명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성의 용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용기는 관성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끄는 힘의 원천입니다. 참된 지성은 질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질문이 답을 추구하는 열망이라면 용기는 답으로 얻어진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질문과 성찰을 통해 발견하는 가치와 대의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미래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 나갑시다. 서울대 캠퍼스의 교육과 연구의 장에 '혁신 생태계'가 자리 잡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읍시다.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순(53조소) 고문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을 오를 땐, 천천히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실바람, 새소리를 놓칠까. 내리막 산길에 서는 발걸음을 더 천천히 늦추는 것이 맞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반짝거리면 별빛을 놓칠까, 그릇의 맑은 물이 쏟아질까.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막히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갑진년 좋은 일 쟁기시길 바랍니다.

김신현(58회화) 고문



동문 여러분 새해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용이 솟아오르듯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동문이 된 자체가 축복이고 복 많이 받은 것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시다. AI 시대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과학 학문 예술 모든 분야에서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과 의욕이 생기며 모든 것이 소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늘 감사한마음으로 기분 좋게 삽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합니다.

정옥란(62응미) 고문



친애하는 미대 동문님들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고, 자신감 있고, 더욱 건강하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미대 동창회 운영발전과 위상을 위한, 매일 소식지 (E-NEWS), 에스아트플랫폼 (s-art platform)개설, 아카이브인 미대인명록(3000여명) 발간,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여러 종류의 전시회, 행사 등이 있어 미대 동창회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권영걸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 외 팀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엔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경인(60회화) 고문



송구영신 서언

갑진년 새해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대에 입학한 지 어느덧 예순 해를 훌쩍 넘겼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작업해 왔지만, 자금도 놀이터인 작업실에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실증주의는 당시 직업군 중 예술은 '있으나 마나 한' 분야라 치부했습니다. 또 사르트르는 '예술가는 현실과 이상을 혼돈하는 존재'라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는 공허한 인간 영혼의 빈 곳을 메꾸고 위안을 주며 인류에게 봉사합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암자에는 면벽수행자가 있고, 영혼의 숨소리에 취해 고독하지만 무거운 삶의 짐을 메고 비밀스런 창작의 희열을 즐기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遊於藝>란 말처럼 젊거나 나이가 들었든, 현명하거나 좀 모자라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예술에서 노닐 자유가 있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신명나는 꿈을 꾸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심정수(60조소) 고문



김홍도의 '馬上聽鶯道'에 부쳐

희미해진 그라운드/흐르는 세월에 아!/버드나무엔 물이 오르고/그 가지 위에선/피꼬리가 봄이 왔다고 노래하는구나 친구여! 당신은 어디에 있나?/나는 벌써 술 한 잔 하였네. 어느 봄 날 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주고받던 그 술잔은 어디로 갔을까? 선비는 피꼬리 소리에 고개를 돌리고/佳人을 생각 하고 부채를 펼쳤다. 아해야,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라!/봄 소리를 듣고 가져! 형제들이여!/우리도 잔을 들어 새로운 봄날을 맞아/새로운 봄 소리를 들어 보자! 모든 형제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가득 하시기를!

김춘옥(64회화) 고문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새해가 되면 무언가 다짐을 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봅니다. 매년 거듭되는 새해임에도 올해는 지난해의 게으름과 나태는 반복하지는 않아야 하는 마음으로,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물의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물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겨지는 그릇의 모양대로 순응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도달하는 곳은 넓은 바다이며 물로서 씻을 수 있는 더러움은 씻어주면서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매사에 유연하게 순응하면서 모나지 않고, 너그럽게 포용하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현명한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老子는 上善 若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가 혼돈되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새해를 맞으며 어렵지만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봄은 어떨까요?

오용길(65회화) 고문



2024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기쁨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을 씨뿌리고 가꾸어서 그 열매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제와 너무 달라서 때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씨뿌리는 시기는 청년시절까지라고 생각했으나 그 시기가 한 번 뿐은 아니라는 걸 요즘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씨뿌리는 수고와 즐거움, 그 씨가 움터서 성장하는 걸 보는 즐거움, 또 그 열매를 얻는 기쁨을 우리 동문들이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인수(66조소) 고문



2024년 푸른 용의 기운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는 여러 어려운 정황을 거치며 뉴노멀시대로 진입하여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구조와 역할에도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사회가 새로운 도전과 함께 문화예술을 더욱 신장시키는 일은 단연코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날 세계화를 넘어 여러 차원에서 지역성을 살펴보는 조용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녔던 점화군생이라는 공존공생의 삶의 철학과 이로 부터 파생된 문화유산은 다양하고 품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우르는 넓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구의 근대적 흐름의 과정에도 탁마의 시기를 거치며 새로이 가치창출이라는 주도적이고 예시적인 문화 예술의 장을 도져하게 펼쳐나가는 동문 여러분의 열망과 노고에 큰 지지를 보냅니다.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에 생생한 탄력과 위안으로 밝고 따듯함을 가져오는 동문 여러분의 열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고귀한 영혼이고 세계이고 오늘입니다. 새해 동쪽에서 오는 상서로운 푸른 기운이 모교와 동문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변희준(63조소) 고문



한없이 크고 벅찬 미래의 작업들을 꿈꾸며 대학문을 나설 때 우리들은 분명 빛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때로는 성취하며 많은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실패의 아픔도 귀한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갑진년 벽두에 우리의 미뤄진 도전의 과제를 마저 해야겠다고 힘찬 다짐을 해봅니다. 이 다짐을 담아내는 동지가 되어주는 미술대학 동창회 직원과 동문들, 그리고 회장님과 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운성(65회화) 고문



예사롭지 않고 심상치 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병중(74회화) 고문



엄동설한에도 늘 푸른 상록수처럼, 엄혹한 시절이지만 동문님들의 삶과 하시는 일들이 늘 생명력 넘치고 상상하기 바랍니다.

본회소식

2024 S-아트페어 출품안내

본회는 (사)에스아트플랫폼과 오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소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4 S-아트페어를 개최한다.

- 출품작품: 1인 1점/ 판매 가능한 작품
- 작품규격: 평면 90x90cm 이내, 입체 (높이)60x50x50cm이내
- 신청기한: 2월 12일(월)까지(신청순 50명)
- 신청방법: 문자(010-8605-8065)로 신청(아트페어,성명,학번,학과기재)
- 참가비: 10만원(참가신청과함께 납부)
- 납부계좌: 단, 평생회비 또는 24년도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함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동문부터 2023년도 신입동문까지 3000여명의 실적이 수록됐으며,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됐다. 본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도록의 회원할인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해 아래와 같이 구매신청을 받는다. 단, 평생회비 또는 2024년도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할인가구매가 가능하다.

- 할인가기간: 2월 29일까지 연장
- 구매신청: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 성명, 학번, 학과 명시)
- 회원할인: 5만원(정가 15만원)
- 납부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구매문의: 02-555-1946

충주미술여행 개최



겨울 충주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본회는 오는 2월 27일부터 28일, 1박2일 일정으로 눈 . 온천 . 크루즈 . 충주미술여행을 개최한다. 김홍도가 그린 도담삼봉과 단양8경의 낭만 가득한 충주호 크루즈, 왕의 온천 수안보에서 힐링, 조선시대 과거를 보기위해 걸었던 문경새재 옛길을 걸어보는 여행이다. 더불어 단양 더덕마늘정식, 충주 우렁된장쌈&찌개, 문경새재 오미자고추장석쇠구이정식 등 각 지역 맛집 투어도 함께 한다. 특히 미술여행인 만큼 후에는 3월 26일부터 4월 6일 신사동 갤러리 PAL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에는 지난해

속초미술여행 참가자들도 함께 하게 된다.(참가문의 02-555-1946)

서울대미술인 회원할인신청 연장

본회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을 발간했다. 도록에는 시각예술은 물론, 모든 분야의 46학번 원로

인사말

이원식(70응미) 남가주미대동창회 회장



2023년 우리는 사회적,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가족과 나는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그랜드 캐년을 향해 밤새 운전했습니다. 매일 뜨고 지는 똑같은 태양이 어둠 속에서도 우아하고 힘차게 솟아올라 나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새해에 대한 힘과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희망과 기쁨으로 새해의 태양을 맞이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을 맞이하시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며,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건강의 한해이기를 기원합니다.



S-미술아카데미

2024 봄학기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1(목)~2/29(목)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납부계좌: 농협 317-0021-9774-91(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수강기간
3/11(월)~6/29(토) 15주 / 공휴일 휴관
오전반: 10~13시 / 오후반: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9길 16 백역미술관 2층)

수강정원
15명(신청순 접수, 10명미만 폐강)

수강료
50만원(vat포함)
*서울대동문 10%할인
*강좌에 따라 모델료등 별도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2024 미술실기 아카데미 봄학기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10-13시	인물화1 (누드포함) 오용길	유화 (초, 중급) 안성규	프리드로잉 (누드드로킹) 임철순	태블릿PC로 그리는 유화&수채화 (디지털 페인팅) 이필두	수채화 (수채화) 유정근	나의 이야기와 그림 (그림책 워크샵) 곽영권/한성원
14-17시	인물화2 (누드포함) 오용길	반려동물 그리기 (영모화) 김종선	프리페인팅 (자유창작) 임철순	여백과 묵향의 힐링 (사군자, 문인화) 변영혜	유화 첫걸음 (유화) 권기동	민화의 전통과 혁신 (현대실용민화) 이민주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모교소식



12월 '졸업하면 뭐할래?'

지난해 12월 27일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가 화상채팅 프로그램 ZOOM을 통해 개최되었다. 이번 특강은 두 강의로 이루어졌다. 먼저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미술경영의 진로 영역과 역량 개발'을 주제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강의는 미술 기획, 경영, 행정 분야의 진로와 필요 역량을 소개하고 미술문화와 사회를 연결하는 미술경영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관련 분야 경력 개발에 대한 전망과 고민을 공유하였다. 두 번째 순서로 홍이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의 '어쩌다 여기까지'라는 제목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일상적 침투는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변화시켰고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시공간의 경계와 의미를 완전히 뒤바꿨다"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시각예술과 문화 흐름 역시도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강의는 새로운 기술과 인지 변화에 따라 시각 예술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통해 2010년 이후의 동시대 현대미술 현장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한편, 모교는 2022년 2학기부터 미술 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 시리즈를 진행해왔다. 2023년에도 창작활동과 더불어 미술계 안팎에서 활약하는 16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예술과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생각들을 공유했다.

2024 교육포럼 학술회의



지난 1월 19일 화상채팅 프로그램 ZOOM을 통하여 모교 교육포럼 학술회의 '다학제 융합 환경에서 Art & Design 전공의 가치'가 개최되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 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학술회의는 융합 교육 환경에서 인간 활동에 기반한

Art & Design 전공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Art & Design을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Art & Design 전공이 자신의 작업과 삶에 미친 영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회의는 정의철 모교 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동윤 Meta, Reality Labs 디자인팀 수석디자이너(Designing for Mixed Reality), 김서룡 베니스 디자인 비엔날레 초청 작가(Contextualized Technology), 서한경 서울대 철학과 및 서양화전공 작가(좋아함과 쓸모)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최수진 모교 서양화 및 도예과 전공 작가(물질과 비물질의 세계), 강유진 오색빛뿔 대표(서양화에서 동양화, 고미술까지), 신교명 서울대 키네틱조형 및 기계공학 전공 작가(손을 위한 기계), 이장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태양을 가리키기)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학생회, 간식자판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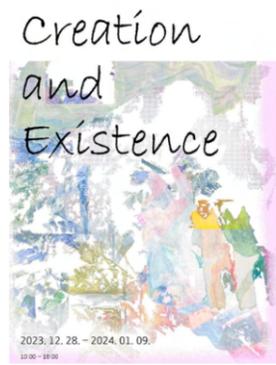
모교 학생회(회장 윤술하)는 지난해 12월 모교 50동 학생휴게실에 간식 자판기를 설치했다. 자판기가 설치된 화방 앞 학생휴게실은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간편하게 식사를 하던 느티나무 음대점이 지난해 8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자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학생회 측이 모교 정의철 학장과 민복기 학생부학장의 도움으로



추가 설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간식 자판기를 도입해 설치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 설치한 간식 자판기는 기존에는 없었던 에너지바, 과자 외에도 카페인 음료 등도 있어 간단하게 요기를 채우기 좋고, 또한 선호도에 따라 메뉴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윤술하(22동양) 학생회장은 "미대 특성상 학교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식당이 없어서 미대 내 간식 자판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에 이를 실천하게 됐다. 하지만 끼니를 챙기기엔 아쉬워서 앞으로 컵밥 또는 구운 계란 등의 간편식이 들어있는 자판기를

우석갤러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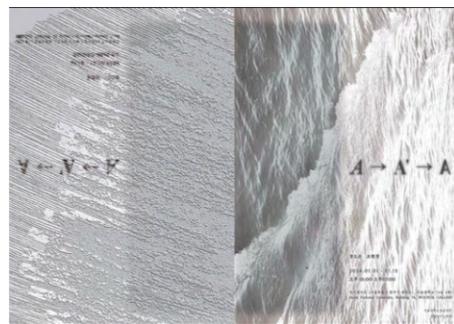
'Creation and Existence'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9일까지 우석갤러리에서 배하(@baehaa)의 개인전 'Creation and Existence (창조와 존재, 회화 전)'이 열렸다. 'Creation and Existence'는 캔버스 안의 세계와 캔버스 밖의 세계에 대한 전시로,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세상'을 탐구한 작업을 선보인다. 이번 개인전에 구석기 벽화를 재해석한 작품 'Creation and Existence'가 전시되었다.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오지마'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우석갤러리에서 김아주(17조소), 노지영(18조소)의 전시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오지마'가 개최되었다. 김아주, 노지영은 서로 다른 소통 방식으로 '강박과 낯부끄러움', '가벼운 농담'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한다. '자랑하고 싶지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내 새끼들(작업들)' 이번 전시를 통해 주섬주섬 내보인다"라고 두 작가는 전시를 소개한다.



'A→A'→A'

지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석갤러리에서는 장도은(조소20줄), 조현정(조소20줄) 작가의 'A→A'→A' 전시가 개최되었다. 그간 해왔던 작업을 공유하며 변주와 확장을 시도한 두 작가는 서로 다른 성향에도 절묘하게 들어맞는 대화 방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독특한 맥락을 형성했다. 두 작가의 공통점은 나무를 다른 재료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 뿐, 주제부터 표현까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Re-'

지난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청이인(석20동양)의 개인전 'Re-'가 우석갤러리에서 열렸다. 제목인 'Re-'는 영어 접두사로서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재(再)', '다시'를 의미한다. 'Re-', 즉 '다시' 하는 태도는 청이인이 산수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관통한다. 그는 창작 주체로서의 작가가 산수를 관찰하고, 지각하며, 인식하는 방식들 간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주시한다.

서울대소식

서울대-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식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12월 22일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임상연구센터(서울분소) 건립을 위한 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감염병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감염병 임상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염병임상연구센터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신설 추진 중인 기구로 임상시험 법·제도 정비 총괄,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공익적 임상연구, 임상연구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의 역할을 통하여 항생제 내성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임상시험, 코호트연구, 중개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홍림 총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보건 의료 역량이 대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학-관-병의 모범 사례로서 국가 보건안보 역량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 QS 지속가능성 평가’ 국내 1위



서울대가 ‘2024 QS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국내 1위, 아시아 3위, 세계 46위에 이름을 올렸다. ‘QS 지속가능성 평가’는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대학의 ESG 문제 대응 정도 측정을 위해 2022년 신설한 부문으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세계 대학평가에 지표로 반영한다. 평가지표는 환경(45%), 사회(45%), 거버넌스(10%) 3개 분야 9개 항목 53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QS에서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 외에 관련 연구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평가한다. 서울대는 ‘교육의 영향력’ 항목에서 세계 15위, ‘고용과 기회’ 항목에서 22위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대는 2023년 국내 대학 최초로 ‘2021 서울대학교 ESG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Highly Cited Researchers’ 서울대소속 10명 선정

미국의 학술정보 데이터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2023 Highly Cited Researchers(HCR,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서울대 소속 연구자 10명이 선정됐다. 올해 클래리베이트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논문이 피인용된 횟수를 바탕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HCR에 선정했다. HCR로 선정된 연구자는 노벨상에 도전 가능한 이들로도 해석된다. 올해 전 세계 67개국에서 총 6,849명이 선정된 가운데, 국내 연구자는 65명이 선정됐다. 서울대를 1소속으로 둔 연구자는 4개 분야에서 10명이 선정됐다. 서울대와 타 대학·기관 소속을 합해 HCR로 선정된 서울대 동문은 27명이다. 세계 대학·연구 기관 중 1위는 소속 연구자 270명이 선정된 중국과학원으로, 매년 1위였던 하버드대(237명)를 제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69명, 중국이 1,275명, 영국이 574명을 배출했다.

재학생 4명,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서울대 재학생 4명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김하연(19자전), 전현철(19농경제사회), 최재호(22바이오시스템공학), 허건(19생명과학) 등이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고, 배려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 인재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15~34세 청년 대상으로 지역심사와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통해 고등학생, 대학·청년 부문 각 5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한다. 수상자 중 1명에게 국무총리상을, 99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전달한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연구와 봉사, 창업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동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Springer Nature와 국내 최대 규모 OA 출판 계약 체결



서울대는 Springer, Nature, BMC 등의 학술 저널 브랜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학술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와 3년간(2024~26)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을 체결했다.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은 학술지 구독료를 오픈 액세스 출판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열람(Read) 권한과 오픈액세스(OA, Open Access) 출판(Publish) 권한을 하나로 결합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서울대 연구자(서울대병원 연구자 포함)는 기존 구독 자료인 Springer, Academic Journal(nature.com)과 더불어 Adis, Palgrave 저널을 포함한 2,000여 종 이상 저널에 액세스가 가능하며, 별도 논문출판비용 지불 없이 연간 일정 수의 논문을 OA로 출판할 수 있게 된다. 2024년에 267편, 2025년에 280편, 2026년에 294편으로 OA 출력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

‘CES 2024’ SNU관 참가



서울대학교는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4’에 2020, 2022, 2023년에 이어 네 번째로 참여, SNU관을 운영하며 스타트업 기술을 전시했다. 라스베이거스 유레카파크에 약 93m² 규모 독립부스로 운영된 SNU관은 대학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과 사업화 우수 실험실 기술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분야 유망 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로봇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소개했다. 특히 이번 SNU관 참여기업 중 아이디어오션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CES 2024의 인공지능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SNU관 참가기업 외에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만드로(Mark 7D)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교원 및 동문 기업이 CES 2024에 참가했다. 서울대학교는 이번 CES 2024에 SNU관 참가가 서울대학교 우수기술 기반 창업기업 및 연구실의 해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서울대와 주한스웨덴대사관 공동주관 ‘2023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본 행사는 스웨덴과 한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당해의 노벨상을 기념하고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양국의 고등교육과 과학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심포지엄에서는 과학, 경제, 문학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다. 행사는 음악대학 학생들의 축하공연,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의 개회사에 이어, 과학세션, 경제세션, 문학세션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과학세션은 안 굴릭슨 스웨덴왕립공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노벨상 과학분야는 생리학상, 화학상, 물리학상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mRNA 백신 연구, 양자점 연구, 아토초 펄스광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들에게 상이 수여되었다. 각 분야의 발표자가 이들의 연구 업적을 청중에게 소개했다. 경제세션에서는 노벨추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의 저서 ‘커리어 그리고 가정’을 소개했고, 문학세션에서는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노르웨이 작가 윤 포세의 작품, 작가적 면모 등을 소개했다.

총동창회소식



김종섭 총동창회장, 차기 회장 후보자 추대 의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위원장 임현진)가 지난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김종섭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회장 후보 공모에는 한 사람의 지원자나 추천자도 없어 이날 회추위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김회장을 회장 후보자로 초빙하여 추대키로 전원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또 회추위는 감사후보공모에 신청한 곽수근, 김영갑 현 감사를 역시 차기 감사후보자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차기 회장 및 두 감사 후보자는 오는 3월 1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어 오는 3월 29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차기 회장 및 감사로 확정된다.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년이다.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 회의를 열고 이선진(69농가정) 적십자 여성봉사 특별자문과 박식순(77농업교육) KS그룹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공동위원장에 선임했다. 선임 소감에서 이선진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고, 박식순 위원장은 1월 중 1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주선(60영어교육)·류진(78영문) 전 공동위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사회공헌위원회는 관악회와 연계해 동문과 함께하는 라오스 글로벌, 지역사회 SNU공헌단, SNU멘토링사업, 사회공헌아카데미,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장학금을 통한 서울대 동문 자녀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학군사관후보생 위문 간담회

총동창회가 서울대 학군단 동계입영훈련 출정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호암교수회관에서 학군사관후보생 위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송우엽(79체육교육)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성규(81국문) 서울대 교육부총장, 고동운 101학군단장, 김용혁 선임교관, 김영길 군사학 교수와 후보생 26명이 참석했다. 송우엽 사무총장은 “저뿐 아니라 김종섭 총동창회장님과 이경형 상임부회장님도 ROTC 출신”이라며 “최고의 인재답게 건강하게 교육 잘 받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동계입영훈련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A조, 올해 1월 1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B조로 나뉘어 4주간 진행된다. 한편 서울대 학군단은 지난해 여름 하계입영훈련 때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운동부에 장학금 2000만원

‘제10회 서울대학교 체육인의 밤’이 지난해 12월 15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내 37개 운동부 재학생 및 졸업생 200여 명과 전현직 지도교수, 서울대 교육부총장, 학생처장, 스포츠진흥원장, 총동창회 김인규 수석 부회장과 송우엽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졸업 예정 학생들의 운동부 활동을 돌아보고, 무용부는 축하공연을 펼쳤다. 운동부는 2001년 27개 부, 부원 687명에서 현재 37개 부, 부원 1261명으로 2배 증가했고, 지난해 2억원의 발전기금을 모았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운동부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최우수운동부로 선정된 배드민턴부에 김인규 수석부회장이 상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모범운동부원으로 뽑힌 여자농구부 이래은(21체육교육) 학생 외 9명도 총동창회에서 전달한 장학증서를 받았다.

S-ARTMALL

SOUVENIR

서울대미대동창회 기념굿즈!

깔끔한 미대동창회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에스아트몰에서 만나보세요



sartmall.com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물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캔버스 앞치마(네이비/다크그레이) 80x61cm



동문할인가격 ₩30,000 ₩27,000



다용도 도자필통
 지름6.7x높이10cm ₩25,000 ₩22,500 동문할인가격



여행용 워시백 15.5x22x7cm ₩17,000 ₩15,300 동문할인가격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3.12.28~24.1.31)

- 부회장 회비 안영나(80회화)
- 이 사 회비 이애자(73응미) 전민숙(74조소)
- 일 반 회비 고영훈(90동양) 김선영(86동양) 김현지(88동양) 강재희(84동양) 박선후(88산미) 서길현(91조소) 심영자(62조소) 윤나리(88산미) 이길원(69회화) 이주원(87동양) 최진주(81회화) 한두희(72조소) 한영옥(58회화) 홍정희(60회화) 황은성(명예회원)
- 후 원 금 황현수(74조소) 40만원 이민주(76회화) 30만원 김홍규(83응미) 20만원 박소영(73회화) 5만원
- 광고후원금 김승희(65응미) 50만원 서동희(66응미) 심현희(76회화) 최혜인(90동양) 각20만원

동창회SNS로 소식을 보고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밴드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숨은예술가들'과 '그림속 풍경을 찾아서' 공식 영상-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자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플(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의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월)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F(인물)		P(풍경)		M(해경)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100*80	6,6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생명 칸타타 김병중(74회화)

김병중 동문과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책 '생명 칸타타'가 지난해 11월 출간되었다. '바보 예수'와 '생명의 노래' 연작을 통해 끊임없이 생명을 화두로 작품 세계를 펼쳐온 한국화가 김동문, 그리고 동물과 곤충들의 행동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 나아가 생명의 과학적 진리를 찾아 나서고 과학의 대중화를 주창해 온 최재천 교수의 만남은 만남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다. 이 책은 두 저자의 어린 시절, 그리고 생명을 주제로 한 학문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과정을 인간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그리



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 보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운이 있는 김동문의 '생명' 연작 등의 그림이 더해져 감동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고되게 달리는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만끽하라는 두 저자의 전언으로 가득 차 있다. 한편, 김동문은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한민국문화훈장, 대한민국근정훈장, 대한민국미술인상, 한국미술기자상 등을 받았고 모교 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며, 가천대에 석좌교수로 있다.

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 취임 김종선(7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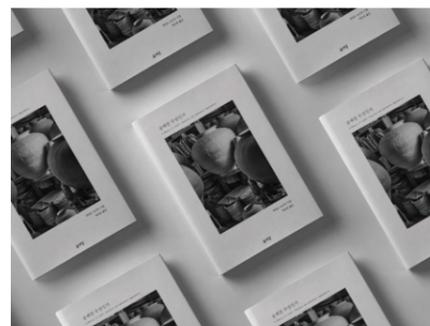
김종선 동문이 지난 1월 24일 (사)현대한국화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3년이다. 현대한국화협회는 1981년 6월에 약 50명의 작가가 결성한 미술 단체이다. 민족미술의 뿌리를 내리고 한국미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역사 의식을 통해 세계 미술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창립 목표로 밝혔다. 한국미술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국내 미술 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동양화라는 호칭 대신에 한국화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한편 김동문은 국내 최고 영모화(翎毛



畫) 작가이다.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보여주는 고려불화를 재현하고 전시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한다. 김동문은 중앙대학교, 전남대학교, 수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 회원, 국가원로회의 전문위원, (사)현대한국화협회 부이사장, (사)국전작가협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공예란 무엇인가' 복간 허보윤(86공예)

허보윤 모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교수가 옮긴 책 '공예란 무엇인가'(하워드 리사티 지음)가 도서출판 유아당에서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복간됐다. 본 서적은 2011년 한국어 번역본 출간 후, 판권 소멸로 2013년 절판됐다. 이후 중고 사이트에서 정가의 최소 2배부터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돼 왔다. '공예란 무엇인가'는 금속, 도자, 섬유, 유리, 목공예 등의 순수미술과 바우하우스에서 Memphis에 이르는 디자인 제품까지 실용, 순수 공예를 포괄하며 현대 공예의 의미를 탐구하고 공예가 학문 분야로 성립되기 위한 여



러 담론을 시도하고 있는 본격 공예 이론서다. 새로운 표지로 단장하고 기존 버전을 교정, 재번역한 복간본에는 저자 하워드 리사티가 한국 독자에게 전하는 복간 기념 '작가의 말'과 허동문의 역사 서문이 추가됐다. 복간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26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 공개된 후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펀딩률 2,300%를 달성했고, '공예란 무엇인가' 복간본은 지난해 12월에 펀딩 참여자에게 전달되었다.

AI가 바꾸는 학교수업 챗GPT 교육활용 오창근(90조소)

오창근 동문이 'AI가 바꾸는 학교수업 챗GPT 교육활용'을 지난 10월 25일 출간했다. 체험학습 글짓기부터 평가 자료의 정리, 인공지능과 사회윤리 문제의 이해, 코딩 학습 해결까지 교육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실무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책은 기존의 수많은 인공지능 활용서와 달리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올바른 교육 활용 가이드를 제시한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불안전성을 전제로 사용자가 내용을 보완하면서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교육 분야에 오랜 기간 몸을 담은 저자가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챗GPT 교육 방식과 인공지능의 개념 설명은 물론 다채로운 교육 활용 방법과 자기 주도 학습을 포함하여 파이썬 코딩 학습까지 제안하면서 사용자가 챗GPT와 함께 교육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가이드 한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조소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로봇공학과 예술의 융합'을 연구했다. 미디어아트 작가로서 여러 기획전과 미디어 페스티벌에 초청되었으며, 6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제1회 우석호저널리즘상 학술부문 수상 이준환(90산디)

이준환 동문이 지난해 11월 11일 제1회 우석호저널리즘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학회(회장 강명현)는 KBS 보도국장을 지낸故 우석호 기사를 기리기 위해 '우석호 방송저널리즘상'을 제정했고 시상식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방송학회는 제1회 수상자로 보도 부문에 KBS 이도영·최유경 기자, 학술 부문에 서울대 정성욱·이준환 교수를 선정했다. 제1회 수상자로 'VR뉴스는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저널리즘이 될 수 있을까?' 논문을 쓴 이동문이 학술



부문 상을 받았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카네기멜론대학교 대학원 석사와 Computer Science, Human Computer Interaction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네오위즈인터넷 CEO, 한국HCI학회 이사와 디자인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상임이사, 언론정보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수를 놓는 소년 박세영(00동양)

지난해 10월에 박세영 동문의 장편소설 '수를 놓는 소년'이 출판됐다. '수를 놓는 소년'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중국 심양 땅에 피로인으로 끌려간 한 조선인 소년의 삶을 통해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낸다. 박동문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린 한 소년의 고난과 역경,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자수 예술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담아냈다. 이 소설은 조선에 실제로 존재했던 남성 자수장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인 인물을 통해 자수가



흔히 규방 여성들의 예술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환기하며, 자수의 특성을 탄탄한 이야기 구조 속에 잘 녹여내어 마치 한 폭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독자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동양학과 학부과정과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12, 2014년 Bologna Children's Book Fair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75인'에 선정되었고, 2018년 Sharjah Children's Reading Festival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2위를 수상했다.

청람미술연구소 창립전 이종수(54응미 | 193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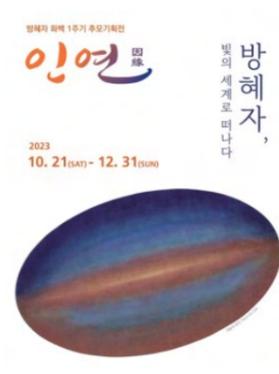
이종수미술관건립기념 청람미술연구소 창립전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화니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 이종수 동문을 비롯한 16인의 작가와 청람연구소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종수는 도예가이자 대전의 원로예술인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1979년에는 도자 예술에 전념하고자 교수직을 사임하고 대전에 내려와 작품활동에 전념하였다. 조성남 대전문화관장은 본 창립전 축하사에서 이종수는 “누구보다도 대



전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진지했으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간 도예가였다”며, 그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이종수미술관 창립은 그 자체만으로 대전예술을 널리 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미술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종수미술관은 2023년 3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이종수미술관 건립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방혜자, 빛의 세계로 떠나다 방혜자(56회화 | 1937-2022)

방혜자 동문의 1주기 추모기획전 ‘방혜자, 빛의 세계로 떠나다’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은미술관에서 열렸다. 방동문은 1937년 경기도 고양 출생으로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61년 첫 프랑스 국비 유학생으로 선정돼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했다. 어린시절 개울가에서 본 미묘한 빛에 매료되어 50년간 ‘빛’에 천착,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왕성한 작업활동을 선보였다. 한지와 부직포, 흙과 광물성 천연 안료 및 식물성 염료 등 다양한 재



료를 사용하여 ‘빛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았던 고인은 생전 ‘빛의 화가’로 명성을 떨쳤다. 영은미술관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하여 ‘내면의 깊은 빛을 추구하여 작업으로 승화시킨 수행자 같은 예술가 ‘방혜자’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자리’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동문은 2002년 영은창작스튜디오에 2기로 입주하여 2022년 작고하기 전까지 20년간 영은창작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획 劃 임충섭(60회화)

임충섭 동문의 개인전 ‘획 劃’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갤러리현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현대가 기획한 세 번째 임동문의 개인전이다. 1970년대 초 뉴욕으로 이주한 이후 독창적인 조형언어가 구축되기 시작한 작가의 1980년대 작업부터 2020년 근작까지 50여 점을 대거 소개했다. 어떠한 미술 사조와 예술론에도 기대지 않고 서양의 현대미술과 동양의 서예 예술의 조형성 사이를 다각도로 실험해 온 임동문의 미적 성취를 집중 조명



하고자 한다고 갤러리현대는 말했다. 임동문은 회화, 드로잉, 조각, 오브제,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론에 경계 없이 특유의 조형성을 실험한다. 다양한 일상적 사물을 콜라주하거나 아상블라주하여 화면에 이색적인 형태와 구조를 담아낸다. 뉴욕 거리를 걸으며 발견한 나뭇가지와 새의 깃털, 나무젓가락, 공업용 못과 지퍼, 자, 방충망, 휴지 등 성질과 쓰임새가 다양한 재료를 한 화면에 배치하거나 중첩한다.

바이블도자전 서동희(66응미)

서동희 동문의 ‘바이블도자전’이 자양동 바이블도자예술관에서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열린다. 전시의 주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본 전시에 대표작인 보좌는 핀칭과 슬라이싱 기법이 사용되었고 이는 세 유닛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밖에 세 유닛으로 된 작품으로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책 등이 있다. 이 전시에 관해 평론가 글렌 브라운교수(캔사스 주립대미술사학과)는 “새 작품은 훌륭하다. 3개의 유닛이 있는 키가 큰 작품들은 정말 잘 작동한다. 그 작품들



은 나에게 브랑쿠시의 작품들이 생각나게 하지만 좀 더 역동적이고 블랙베이스는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동문은 미국 캔자스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자공예로 석사를, 미국미주리대학교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으로 박사를 했다. 21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3년에 미국 뉴욕 마퀴스 후스후 주관 최고예술가상을 받았다. 35년 동안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도예공예 전공교수로 후학을 지도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후원광고

서동희

바이블 도자예술관 2024 특별전

2024.01.12(금)-05.22(수)

화-금 11am-5pm(3월은 해외학회참석차 부재중)

바이블 도자예술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C-3304
2호선 건대입구역 5번출구

Tel. 010-2271-2257(전화 예약 후 방문)
Mail. dhs471208@gmal.com
Homepage. <http://www.dongheesuh.info/>

하나님 말씀(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을 조형적으로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접근성 좋은 위치에 대지와 건립비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뜻이있는 후원자 분들은 아래계좌에 동참 바랍니다. 후원계좌 납입처: 신한은행 110-185-773317(바이블도자재단)

괴산의 그림쟁이 황창배(66회화 | 1947-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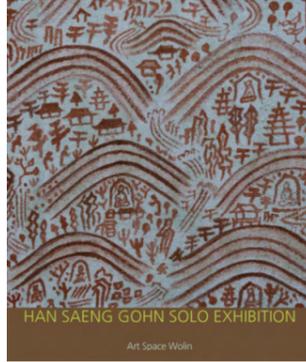
황창배 동문의 작고 22주기 기획초대전 ‘괴산의 그림쟁이’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청주시 쉼마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황동문이 작고하기 전 충북 괴산에서 작업하던 1990~2000년대의 성화와 꽃 작업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황동문은 1947년생으로 모교 회화과 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동덕여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에 재직하며 20여 년간 교육자로 일했



고 이후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김재관 쉼마미술관 관장은 “황화백은 자신을 화려하게 아마추어 화단의 정상에 올려놓았던 동양화의 화법을 모두 버리고 한국화의 현대화를 이끈 한국 화가의 선두주자였다”라며 “서양화의 현대 회화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 작가”라고 회고했다. 전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쉼마미술관에서 황동문 작품과 작업세계를 주제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딸감전 한생곤(84서양)

한생곤 동문의 21번째 개인전 ‘딸감전’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아트스페이스 월인에서 열렸다. 아트스페이스 월인에서 개최한 한동문의 두번째 개인전이기도 하다. ‘길 위의 화가’라고 불리는 한동문은 일찌감치 ‘은둔’과 ‘유랑’이라는 삶을 선택하고 중고 버스 한 대를 노랑게 칠한 채 유랑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면서 논에서 피를 뽑고 있는 아버지, 농가의 가족, 텅구는 나뭇잎 등 삶과 가까운 곳에서 작품 모티브를 찾았다. 이번 전시에서



는 이러한 한동문의 감상이 잘 드러나는 소품 30여 점을 선보였다. 한편 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석사학위 논문 ‘깨달음의 회화적 수렴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신을 ‘지구 위의 여행자’라고 정의하며, 삶과 예술에 관한 내면의 고백을 솔직하고 치열하게 전개했다. 이후 꾸준히 전시활동을 하여 21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BLOW-UP 이광호(87서양)

이광호 동문의 개인전 ‘BLOW-UP’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다. 9년 만에 열리는 이동문의 개인전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사실주의 화가로 불리는 이동문의 신작 65점을 선보였다. 전통적인 회화적 재현기법부터 현대적 기법까지 섭렵한 이동문은 장르적 경계를 넘나들며,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시선으로’ 그 대상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즐기치게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 이동문이 뉴질랜드 여행 중 케플러 트랙 (Kepler Track) 인근에 위치한 습지를 우연히 방문한 것을 계기로 작업한 근작



들에 집중한다. ‘Untitled 4819-1’부터 ‘Untitled 4819-60’까지 (‘Untitled 4819-12’ 제외) 59점의 캔버스 구성된 대규모 풍경 회화도 그가 습지를 방문하여 찍은 사진들 중 하나에서 출발했다. 본 전시의 제목 ‘BLOW-UP’은 이동문이 영감을 받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에서 인용한 것으로, 사진이나 영화를 확대한다는 용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졸업 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 재직 중이다.

심현희 초대전 심현희(76회화)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떼아트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 심현희 동문은 자신과 주변의 삶에 대한 내밀한 기록물 같은 작품들을 오랫동안 일관되게 그려오고 있다. 심동문의 작품 한 어귀에는 늘 짧은 제목과 이름 석 자가 쓰여 있는데 이는 글과 그림이 하나라는 서화동원론적 인식을 보여준다. 심동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상의 단면들을 표현한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들에 투영된 모습들 역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심동문은 그 작은 응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화면 속에 담아내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



고 낯설기도 한 이들을 심동문은 그만의 작가정신과 깊은 내면세계를 통해 연결시키고 있다. 한편 심동문은 모교 대학원 졸업 후 통인옥션갤러리, 아트링크갤러리, 학교재갤러리, 동산방화랑, 금호미술관, 송원화랑 등에서 16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KIAF, 뉴욕아트엑스포, 중앙미술대전 역대 수상 작가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DMZ전, 현대 한국화전(호암갤러리), 우리시대의 초상-아버지전(성곡미술관) 등의 전시에 초대되어 활동했다.

심현희 초대전

2024. 3. 1(금)-14(목)

일요일 휴관

오프닝 3.1(금) 오후5시

떼아트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경교장길35,상가동3155

tteartgallery.com / 전화: 010-9084-6227

후원광고



양혜규: 지속 재연 양혜규(90주소)

양혜규 동문의 핀란드 첫 개인전인 '양혜규: 지속 재연'(Haegue Yang: Continuous Reenactments)이 헬싱키미술관에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9월 벨기에 겐트 현대미술관 S.M.A.K.에서 막을 내린 '양혜규: 몇몇 재연'(Several Reenactments)의 순회전으로, 특유의 기술적 탁월함이 드러나는 다채로운 조각군을 2개의 구 테니스 홀로 이뤄진 대형 전시실에서 보다 큰 규모로 심도 있게 소개한다. 양동문은 추상과 구상, 가사성(domesticity)과 공공성 등 상반되어 보이는 개념을 짝짓고



병치함으로써 긴밀하고 통합적인 상호 연결된 관계들을 드러낸다. 적색과 청색으로 대비되는 색상의 사용은 개념적이며, 사회적이다. 양동문은 색의 기능적인 역할과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동의한 절대적 가치나 믿음에 대한 의문이라는 또 다른 역할을 이 전시에서 재연하고자 한다. 한편 양동문은 모교 주소과 졸업 후 독일 슈테델슐레에서 마이스터슐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독일 슈테델슐레 순수미술학부에 재직 중이다.

The Flesh of Passage 최정윤(91공예)

최정윤 동문의 개인전 'The Flesh of Passage'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갤러리팔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세라믹, 소금, 실로 제작한 검을 설치한 작품과 원사로 구현한 반입체 평면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욕망'을 키워드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최동문은 지난 10여 년간 검(劍)을 모티브로 작품을 발표해왔다. 그에게 검은 욕망의 상징이자 권력의 심볼이다. 모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도자를 전공한 최동문은 최초의 검은 세라믹으로 만들



었다. 그러나 세라믹 검의 분명하고 단조로운 상징성에 한계를 느끼고 소금, 실 등 새로운 재료로 작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번 전시에는 꽃이라는 유기체를 통해 형식의 변화와 은유적 접근을 시도한 최근의 작업도 소개되고 있다. 상이한 듯 보이는 검과 꽃을 관통하는 성질이 '교묘하게 감추어진 본질적 욕망'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최동문은 금산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불타쇼, 아트파리 등 주요 국제아트페어에 참가했다.

EngraBeing _ 새김: 흔적 장양희(94서양)

장양희 동문의 개인전 'EngraBeing _ 새김: 흔적'이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스페이스업에서 개최되었다. 장동문은 인간의 형상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연구하는 작업을 심화시켜 왔다. 이번 전시의 명제 'EngraBeing'은 인간 형상을 새기면서(Engraving) 인간이라는 존재(Being)를 흔적처럼 표현하는 작업의 내용과 형식을 함축하고 있다. 인물 형상을 아크릴판에 레이저로 반복적으로 중첩하여 새기거나 또는 종이를 태워 새김으로써 인



물들은 소멸되는 듯한 흔적처럼 보이게 된다. 장동문은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필연적 현상으로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정서들이 인간 정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이고도, 인간 누구나 가지는 내적 현상이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생(生), 땅으로부터 최혜인(90동양)

최혜인 동문의 개인전 '생(生), 땅으로부터'가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성북동 뮤지엄웨이브에서 열린다. '돌처럼 살리라', 최동문의 책상 앞에 있는 문구다. 최동문은 난초 같은 섬세한 마음과 돌처럼 굳은 심지를 늘 동경했다. 그러다 땅에서 방금 태어난 듯한 동자상을 우연히 만났다. 오랜 시간을 머금고 있는 돌의 장엄함 속에서 슬며시 드러난 동자들의 따뜻한 얼굴들. 이 동자들은 무엇을 먹고 보고 성장하여 이런 다양한 표정으로 서있을까? '생(生), 땅으로부터'는 무한한 시간을 품고 있는 동자, 벽수 석상들을 중심으로



물경하고 유한한 생명의 먹거리들을 식물 초상화처럼 표현해 한 공간에 펼친 전시다. 최동문은 달과 여성, 절기와 땅에서 수확된 먹거리를 소재로 생명성을 탐구하면서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조화로운, '생활 속 양생(養生)'을 추구한다. 그는 햇빛이 익힌 음식을 섭생하며 자연이 내 몸에 스며들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Wintering'(BGN 갤러리, 2023), '해빙(解氷)'(아트레온 갤러리, 2023) 등 19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생生, 땅으로부터

Life, From the Earth

최혜인 Hye In Choi

2024.1.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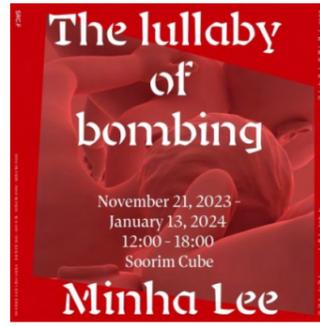
관람시간 10:00~18:00(월 휴관)

뮤지엄웨이브 MUSEUMWAVE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66

후원광고

폭격의 자장가 이민하(98동양)

이민하 동문의 개인전 '폭격의 자장가'가 수림큐브에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개최되었다. 본 전시는 2019년 이동문이 수상한 수림미술상의 수상작가전이다. 수림문화재단은 수림미술상 수상작가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의 작업이 각각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그동안 차별과 혐오부터 역사적 학살까지 우리 시대의 폭력을 폭넓게 다루었던 그는 이번 전시에서 모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작가의 임신·출산·양육



경험은 다양한 여성들의 서사로 확장된다. 영상 속 퍼포먼스에서 스스로 주관자/참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작가는 방관자의 역할을 거부한다. 이동문이 지속해서 다뤄왔던 재료인 가죽의 진동·울림과 폭격음 사운드는 여성의 출산 행위를 단순히 성스러운 것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의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이동문은 5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부산현대미술관, 요츠야 미확인 스튜디오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강아지 이야기 장유경(99서양)

장유경 동문의 전시 '강아지 이야기'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월 4일까지 서울시청본관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장동문은 13년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강아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현재 '개그림'이란 이름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가명 '개그림'은 '개를 그린다'는 의미와 함께 '엄청나게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전시 작품들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담아내고 있



다.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동해', 실제로 존재하는 101마리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그려나간 '101마리 강아지', 강아지의 모습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상 등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었다. 전시 기간에는 장동문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 참여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본 전시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 공모에서 선정된 4개 전시 중 하나이다.

연금술사의 기둥 우민정(04동양)

우민정 동문의 개인전 '연금술사의 기둥'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트잠실에서 개최되었다.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곧 성실함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벌들은 꿀은 구하려 매일 부산히 움직인다. 꿀을 모으는 바쁜 일 이 수고로움은 축복일까? 형벌일까? 달콤한 꿀에 취하지 않은 벌들은 길을 잃었다. 혹은 잊었다. 높은 곳에 하나의 점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홀린 듯 그 빛을 쫓기 시작한다. 꿀은 자연에서 화학적으로 가공된 가장 달콤한 물질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닌 생존 이상의 욕망을 나타낸다. 꿀이



욕망이라면, 벌은 생존, 그 이상의 본질이다. 한편 우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고 흙을 사용한 회화 표면효과에 관심을 가져 기법을 익히면서 작업세계를 구축해왔다. 흙 판을 조성하고 이를 세상과의 경계로 삼으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굽어내어 이미지화하고 중첩, 채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동문은 반복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지만 내일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벼룩 유령 이병수(0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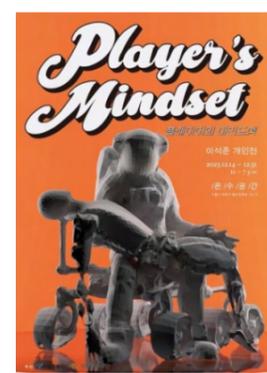
이병수 동문의 개인전 '벼룩 유령'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아트센터 예술의시간에서 개최된다. 이동문의 작업은 장소성을 기반으로 감각과 사유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그는 실재하거나 가상의 장소에서 발현되는 독특한 인상, 장소에 내재된 추상적 개념이나 역사적 이데올로기를 결합하여 작품의 다양한 도달지점을 창출해간다. 이번 개인전 '벼룩 유령'에서 작가는 스위스에 위치한 자유무역항 포트 프랑(Ports Francs)을 주목한다. 고가의 예술작품 거래 및 보관이 이뤄지는 이곳은 실재하지만, 소수만이 접근 가능하기에



은폐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장소이다. 신분의 익명성, 관세로부터의 자유 등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예술작품 또한 최고의 투자상품으로 자리한다. 이동문은 극단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드리운 현대미술의 풍경을 조망하고 이곳에서 발견 가능한 가치들의 충돌을 제시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탈영역우정국, 더레퍼런스, 사루비아다방 등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PLAYER'S MINDSET 이석준(05조소)

이석준 동문의 개인전 'PLAYER'S MINDSET'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온수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위대한 것을 더 위대하게"의 표어 아래,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과장되고 선동적인 이미지들 사이에서 이동문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한다. 본인에게 깊게 각인된 이미지들을 선별하여 재생산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자신과의 지정학적 관계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쟁, 군대, 이념적 대립 등 피할 수 없는 상황들, 원하지 않아도 끝없이 제공되는 정보와 이미지들에 대응하는 작가의 방식은 저항적이면서도 유티



있다.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이동문은 자신을 한 명의 연기하는 배우(Player)로 설정한다. Player로서 그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현재 쏟아지는 화두들을 작품의 영역으로 가져온 뒤,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이미 각인된 이미지의 견고함을 마주했을 때, 단지 그를 수용하는 관람객이 아닌 한 명의 Player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보기를 바란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2019년 김종영미술관 창작지원작가전에 참여한 바 있다.

가장 먼 곳 임재형(08서양)

임재형 동문의 개인전 '가장 먼 곳'이 지난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었다. 잘린 가지들이 목을 내민 채 멈춰 있는 겨울 연못은 을씨년스럽고 고즈넉하다. 지난해의 연꽃은 모두 사라졌다. 땅 속에는 이듬해의 꽃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앞선 세대의 흔적과 다른 세대의 기약 사이를 가로지른 채 수면은 쉽게 흘러가는 하늘의 색을 비춘다. 임동문은 읽을 수 없는 글을 필사하듯 가지의 모양을 옮긴다. 전시를 이루는 여러 갈래의 작품은 감상자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연관되어 해석된다. 누군가 '몽타주'로부터 비극적 사건을 떠올린다면, 다시 내려와 마주친 연못 풍경은 수많은 죽음의 은유로 보일지도 모른다. 공백을 드러낸 창과 문은 상실 이후 생경하게 떠오른 일상의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을 보는가에 따라 그림들은 다른 맥락을 이룬다. 한편, 임동문은 온수공간, 쇼앤티엘 갤러리도스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후루츠 Furutsu 최가영(08동양)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갤러리조선에서 최가영 동문의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최동문은 열대 식물의 생존법을 거울로 삼아 현실과 이상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열대의 낭만을 맛보기 위한 과일이나 그런 풍미의 가공품을 주로 그린다. 최동문의 그림에서 열대 식물은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달콤한 풍미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도록 고채도로 그려져 있지만, 당도가 높아 보이는 빨간 열매를 깨물면 허끝에 전해지는 과육의 끈적한 단물보다 합성착향료의 공허한 향만이 남을 것 같은 기



이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 속에서 작가는 생존을 위해 더욱 달콤하고 화려하게 진화한 열대 식물의 생존 전략을 재정의한다. 또 특정 이미지로 소비돼 온 열대 식물의 모습이 현실 속 삶의 형태와 닮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또 다른 후르츠(과일의 풍미를 흉내 낸 가공품)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비치는가?” 한편, 최동문은 모교 동양화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천천히 걷기 동양화과 동문 6인

김나현(석22동양), 김다운(09동양), 박현욱(박21동양), 성소민(15동양), 이계진(15동양), 장현호(석22동양) 동문의 6인전 ‘천천히 걷기’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월 11일까지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여섯 동문은 천천히 걷듯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 스스로의 감정을 재인식하고 들여다봐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대동양화를 풀어냈다. 김나현 동문은 모호한 형상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김다운 동문은 일상의 사물들을 통해 오늘의 소중함을 표현한 작품



(◀사진)을 내놨다. 박현욱 동문은 창문과 그 너머의 실내 장소들을 그렸고, 성소민 동문은 조각도를 이용해 여행지의 풍경을 목판에 새겼다. 먹에 소금을 더해 우연한 효과를 활용한 이계진 동문의 ‘소금산수’와 장현호 동문의 아크릴 물감과 호분으로 목련을 흑백사진처럼 그린 ‘Magnolia’ 연작도 주목할 만하다. 황달성 금산갤러리 대표는 “천천히 전시장을 거닐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림에서 따스한 위안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현승의(11동양)

현승의 동문의 5번째 개인전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가 지난 1월 5일부터 21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IAP 14기 시각예술부문 프로젝트의 열네 번째이자 마지막 전시로 개최됐다. 현동문은 이상화된 풍경 너머에 작동하는 자본의 논리와 환경, 사회 문제를 밀도 있는 회화로 그려냄으로써 오늘날 사회 현상의 면면을 수집하고 거기에 냉소적인 시각을 담아 작품으로 재구성하며, 사라져가는 것이나 파괴되는 것 중요함에도 쉽게 망각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 다층적인 이미지로 제시한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저 무수한 가정들에 대한 현재의 사소한 이의 제기이자 가볍고 별것 아닌 꾸밈, 막막히 관조하는 태도다. 현동문은 이 가정이 전시장 안에서 공유되고 침잠되며, 관람객의 마음 한구석에 스스슬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 현동문은 개인전 ‘평범한 ■씨의 휴가’(2023, 금호미술관, 서울), ‘검정은 침묵의 동의어다’(2022, 오온, 서울)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회화를 중심으로 영상과 설치를 아우르며 작업 활동을 지속 중이다.

Garden of Windows 김기홍(15동양)

김기홍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코스모40에서 개최되었다. 김동문은 세계적인 운영체제 ‘윈도우’가 버전에 따라 색을 달리함에 주목해 각 버전별 윈도우 바탕화면을 회화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윈도우즈 3.1부터 윈도우즈 95, 98, 2000을 거쳐 윈도우 XP, Vista, 7, 10에 이르기까지 윈도우즈의 시리즈를 산수화의 개념과 결합해 당시 주로 사용하던 모니터 크기에 맞게 제작한 회화 작품을 비롯해 윈도우 창 모양의 산수



구조물 등의 배치까지 산수화나 동아시아적 이미지로 표현한다. 김동문은 이를 개별적인 윈도우들이 각기 다른 기술 및 사회적 배경에서 디자인되었고, 그에 따라 시스템이 지향하는 지점이 시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수평적 관점을 가지고 작업했다고 설명한다.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2022년 ‘16:9’, 2021년 ‘사람과 산수에 관한 그림’, 2018년 ‘예술이 아니어도 좋아’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다.

수면 The Surface 송유경(박17공예)

송유경 동문의 개인전 ‘수면 The Surface’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KCDF 윈도우 갤러리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2023 KCDF공예·디자인공모 전시 신진작가 부문 선정 전시이다. 수면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담는다.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상태의 수면睡眠, 문제나 사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수면水面, 아원 얼굴의 수면垂面, 번뇌의 수면愁眠일 수도 있다. 송동문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이면서도 분할된 두 공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수면을 갈륨이라는 액체 금속으로 그려낸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물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이미지들을 표현한 장신구와 오브제다. 거울과 같은 수면이 주변의 이미지들과 이야기를 반영해, 관점에 따른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편 송동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와 에딘버러 미술대학 Jewellery & Silversmithing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교 대학원 디자인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물결 속의 조각들’(2022, 갤러리마롱) 등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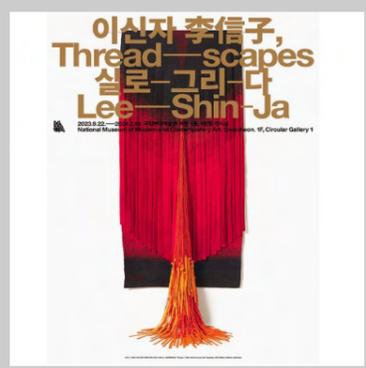
영혼의 어두운 밤 최수진(석18공예)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최수진 동문(필명 소화)의 개인전 ‘영혼의 어두운 밤’이 포에버 forever*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둠의 단상들을 검은색 도자기, 드로잉, 페인팅 등 다양한 형태의 물질로 드러낸다. 전시 제목인 ‘영혼의 어두운 밤’은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고통스럽고 어두운 좁은 길을 표현한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글에서 차용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종교적 구원을 위해, 다른 이는 예술적인 탐구를 위해, 또다른 누군가는 진실된 사랑을 찾기 위해 어두운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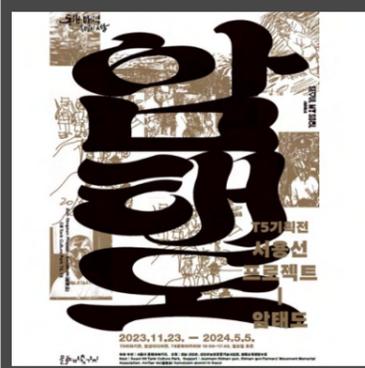
을 걷는다. 최동문의 작품은 우리 마음속 그림자에 빛을 비추는 촛대의 역할을 한다. 그는 작품을 통해 어두운 마음을 갖는 것이 단순한 병리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특성 중 하나라는 시각을 전한다. 최동문이 그의 수필집에서 언급한 “영혼에 그림자가 졌다. 빛을 비추니, 큰 어둠이 이 안에 있다”라는 구절처럼, 그는 예술 작품을 통해 종종 관객이 직접 체험은 했으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을 대신 표현함으로써 공감을 끌어낸다.

2월의 전시



이신자, 실로 그린다

이신자(50응미)
23.9.22-24.2.1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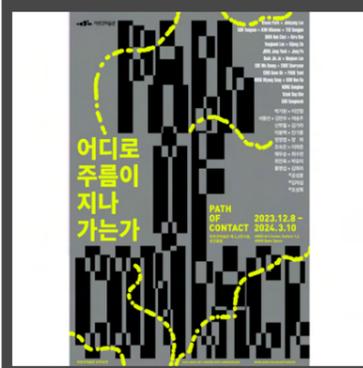
암태도

서용선(75회화)
23.11.23-24.5.5
문화비축기지 T5



지속 재연

양혜규(90조소)
23.11.24-24.4.7
헬싱키미술관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

김차섭(59회화) 외 6인
23.12.8-24.3.10
아르코미술관



괴산의 그림쟁이

황창배(66회화)
23.12.15-24.2.28
쉐마미술관



김창열과 뉴욕

김창열(49회화) 외 5인
23.12.22-24.3.10
김창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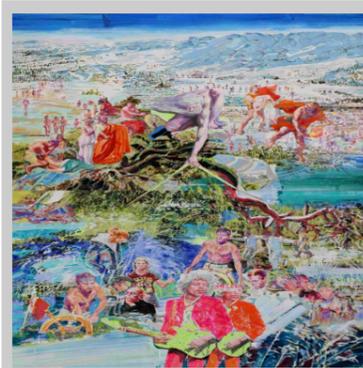
산, 선 그리고 시

김환기(교원) 외 2인
23.12.22-24.3.17
뮤지엄 산



영혼의 어두운 밤

최수진(석1도예)
1.2-2.24
포에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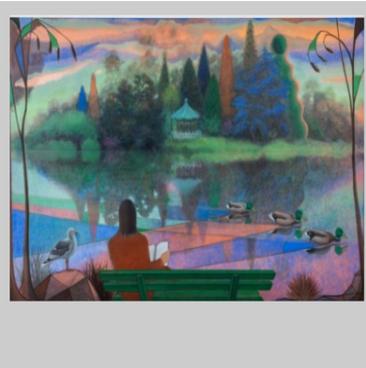
In a Trance

권여현(81회화)
1.9-3.17
K&L Museum



Origine: 원시향

채성필(91동양)
1.11-2.17
아트조선스페이스



원더랜드

유귀미(04동양) 외 3인
1.11-2.24
리만머핀



멧돼지 사냥

빈우혁(석18서양수료)
1.12-2.17
갤러리 바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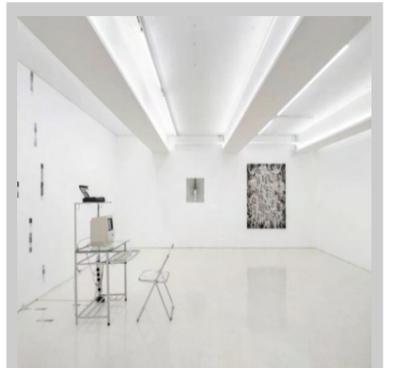
바이블도자예술관 2024특별전

서동희(66응미)
1.12-5.22
바이블도자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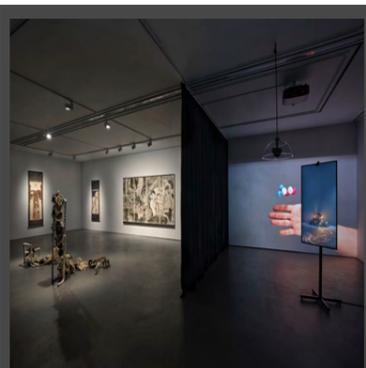
순간 포착. 삶의 현장

이계진(15동양)
1.13-3.3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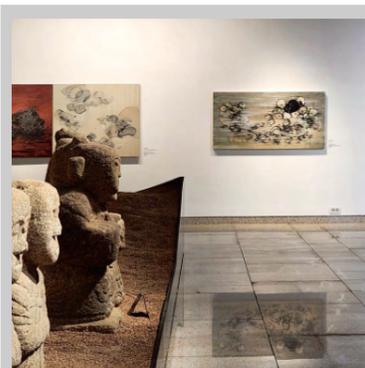
2024.1

홍승표(잭슨홍/90산디)
1.16-3.2
챗터투



두산아트랩 전시 2024

김영미(석사조소)외 4인
1.17-2.24
두산갤러리



생생, 땅으로부터

최혜인(90동양)
1.18-3.3
뮤지엄 웨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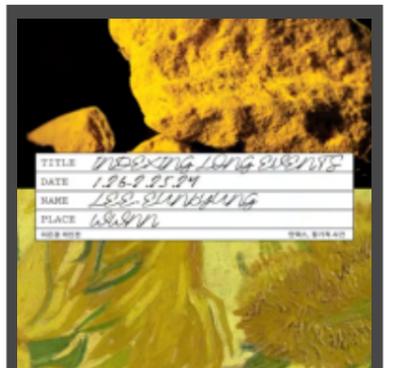
이중:작동:세계:나무

홍민기(11조소) 외 9인
1.19-2.18
탈영역 우정국



권녕숙 전

권녕숙(57회화)
1.20-2.25
마리나갤러리



인덱스, 장기적 사건

이은경(04서양)
1.26-2.25
WMNN